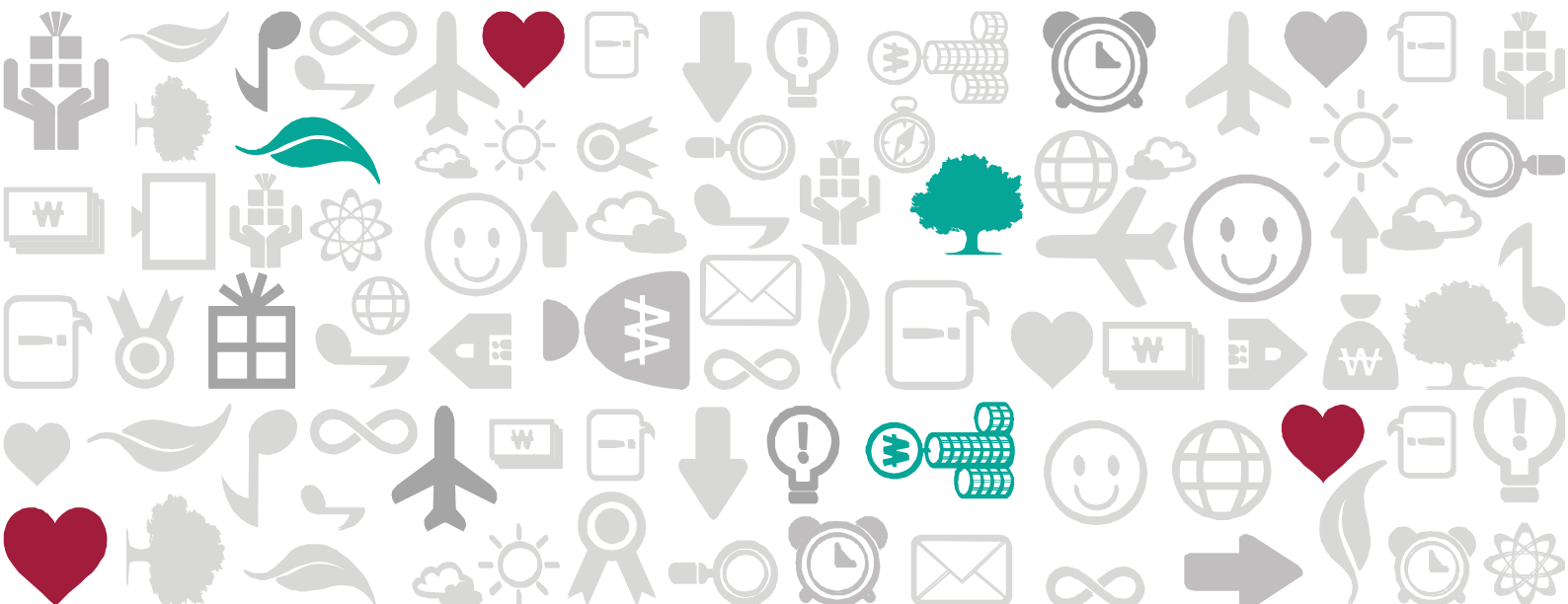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현황 및 전망
홍콩 사적연금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현황 및 전망 홍콩 사적연금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선박회사재직 1씨, 실물자산 조정을 통한 금융자산 확대 운용 필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수익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주식형 상품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5월 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 개선 등으로 상승 흐름 기대	09
국내외 단신	금융위기 이후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재인식과 변화 진행 국민연금, 2013년 기금운용 보고서 발표 DC형 가입자의 실적배당상품 성향 분석	14
상품브리프	가입 후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고령화 시대, 은퇴자를 위한 주거시설	20
하나 뉴스	행복디자인, ‘2014 고객 감동브랜드지수’ 은퇴자산관리 부문 1위 등	22
연금 통계		23

“

국내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현황 및 전망

”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공적 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수혜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2003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민영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발달은 관련 데이터의 부족에 따른 보험사의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간병보험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간병보험 니즈를 공공 부문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에서의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노인들의 장기간 병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가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민영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발달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현황을 공·사 부문에서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민영 간병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지속적인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은 공적 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민영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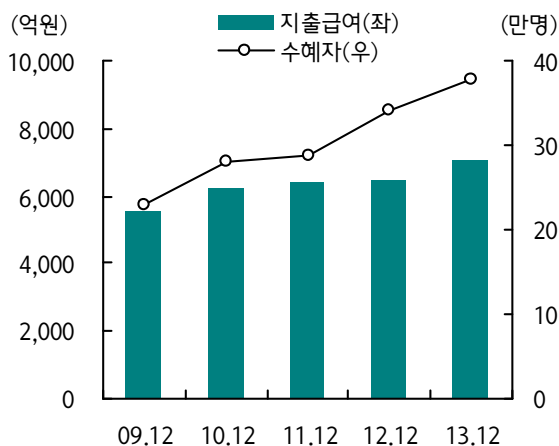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입원 및 통원 치료비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급여에는 방문요양, 목욕 등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관련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경우 지급되는 시설급여,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급여는 장애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져 차등 지급되며, 시설급여의 경우 식사비 및 이·미용료 등 비급여 부문을 제외한 이용금액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이용금액의 8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상당히 큰 편이다.

지난 2008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전체 신청자 수는 685,85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378,493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출 급여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7,070억원으로 2009년 말 5,500억 수준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상당 수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이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영간병보험은 아직까지 비활성화

국내에서 민영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제3보험 상품 중 하나이다. 장기간병보험은 지난 2003년 대형 생보사에서 처음으로 출시하였으며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간병비를 매달,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아 생존보장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높아 고객들의 호응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간병보험은 출시된 지 2~3년 만에 판매가 중단되었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되면서 2012년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이 재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상품의 담보 내역을 살펴보면 암보험의 진단자금과 유사하게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시금을 지급하며, 그 이후 최대 10년까지 장기간병연금 형태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2013년 들어서는 생명보험사에서도 장기간병보험을 재출시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기간병보험 판매 실적은 미미한 수

민영 장기간병보험 추이

(단위 : 천건, %)

		FY09	FY10	FY11	FY12
생명보험	보유 계약 건수	1,010	1,295	1,479	1,641
	전년비 증가율	96.7	28.2	14.2	10.9
손해보험	보유 계약 건수	181	218	300	775
	전년비 증가율	33.0	20.2	37.8	157.6

| 주 : 13개 생보사, 8개 손보사 기준

자료 : 보험연구원

준으로 201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손보사의 장기간 병보험 판매 규모는 3,225억으로 제3보험 전체 판매 실적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며 생보사의 경우 장기간 병보험 판매 규모는 1,260억원으로 더 미미하다. 이와 같은 민영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더딘 발전은 고객들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적절한 경험 데이터 부재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리스크가 큰 데 기인한다.

선진국, 공적 간병보험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민영 간병보험 발달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간병에 관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공적 간병보험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면서 점차 민영 간병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마다 공적 간병보험의 제도적 특징에 따라 민영 간병보험시장의 발달에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에 대응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지난 2000년 공적 간병보험제도인 개호보험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기간이 경과할 수록 급격히 확대되는 간병 급부비용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민영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로 현재 민영 간병보험의 가구 가입율은 14.2%에 이른다. 향후에도 자기부담률이 크게 증가하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개호보험 유입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간병수당(APA)을 운영 중이다. APA는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장기요양특별급여(PSC)와 달리

6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일반 중산층 이상은 민영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노후를 준비 중으로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민영장기간병보험이 가장 발달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민영장기간병보험 시장에 유입되는 수입보험료 규모는 50억 유로에 달하며 약 55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경우 가입율이 25%에 이른다

장기간병보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향후 국내 민영장기간병보험 시장은 선진국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에 따른 공공 부문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지난 201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노인 인구가 5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향후에도 기대 여명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시 장기간병보험의 잠재수요층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통적으로 간병인의 역할을 해왔던 자녀 세대의 간병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2013년 기준 노년 부양비는 16.7%로 오는 2020년에는 23.4%, 2030년에는 38.6%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전통적인 관점에서 간병인의 역할을 수행한 자녀 세대의 간병 여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누군가는 이 자리를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지난 2006년 65세 노인인구 10만 명당 1,923명에서 2011년에는 5,12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가 무

엇인지를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병서비스가 건강검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간병보험 가입 니즈는 점차 강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니즈를 모두 국가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공급자 측면에서도 보험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에서 향후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간병보험 등 고령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고령화와 관련된 검증된 통계 부족으로 적정 위험률 산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타 상품 대비 역선택이나 모럴 헤저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단기간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영장기간병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현재 노인요양서비스를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로써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 등 몇몇 선진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오히려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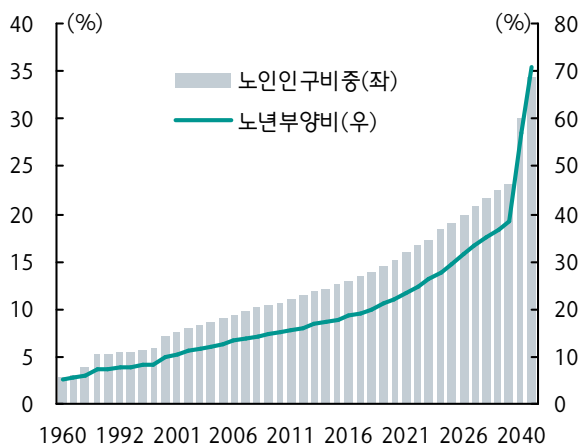
그러나 시행 만 6년을 맞고 있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직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 중

으로 지난해 9월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영 장기간병보험 측면에서도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충분히 보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간병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방안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험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상품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안까지 다각도의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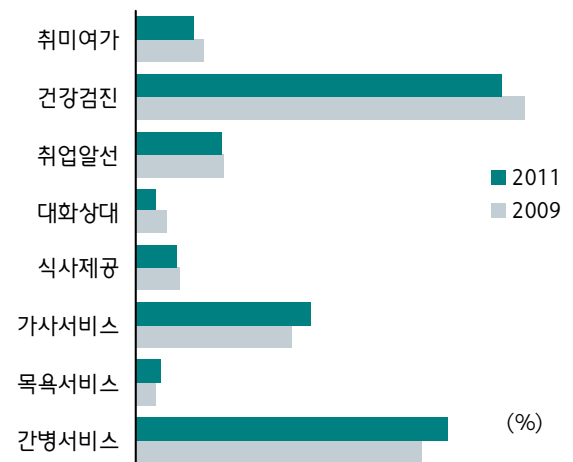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보험사는 소득이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고급화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고객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마케팅 강화를 통해 중요성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 주 :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자료 : 보험개발원

간병서비스에 대한 니즈 증가



| 주 : 65세 이상 노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개발원

“

홍콩 사적연금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

수석연구원 주 윤 신
(ysju@hanafn.com)

“홍콩 사적연금시장은 2000년 강제가입연금제도인 MPF 제도 도입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처럼 홍콩의 사적연금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금 가입의 강제화 외에도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및 금융회사의 투자자 교육 등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진행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노후생활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적연금시장의 발달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개인 및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

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시장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칠레,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완전 대체해 퇴직연금 가입을 법으로 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65세 노인 인구가 7.2%를 기록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9년 고령 사회에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2044년 재정적자,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00년 MPF(Mandatory Provident Fund)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홍콩 사적연금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홍콩 연금시장은 공적연금제도 없이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 수행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국가가 급여를 책임지는 공적연금, 기업이 책임지는 기업연금 및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체제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연금제도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1층 연금제도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보완적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공적연금제도는 없고 국내의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노후보장과 관련된 공공부조 형태의 CSSA(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및 SSAS(Social Security Allowance

Scheme)만이 존재한다. CSSA는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 고령자, 장애인, 병자, 실업자, 빈곤층 등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지원하며, SSAS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월 보조금 지원제도이다. 2층 연금제도로서의 퇴직연금제도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되는 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와 강제 퇴직연금제도인 MPF가 있다.

2000년 ORSO의 문제점을 보완한 강제 퇴직연금제도인 MPF 도입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보장장치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홍콩 정부는 1993년 임의기업 연금제도인 ORSO를 도입했다. ORSO 도입 이전 홍콩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자산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ORSO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 퇴직연금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ORSO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임의기업 연금제도이고 10년 이상 근무해야 적립금의 100%를 수급할 수 있어 이직률이 증가하는 홍콩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점, 퇴직연금 운용사와 수탁자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 유지가 불가능하다

는 문제점 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홍콩 정부는 1995년 8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MPF 관련 법령을 정비한데 이어, 2000년 12월에는 모든 홍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MPF 제도를 시행하였다.

MPF는 ORSO와 가입의 강제성 여부, 제도 유형, 최소 적립액 등에 있어 차이 존재

홍콩의 퇴직연금제도인 ORSO 및 MPF 제도는 두 제도 모두 연간 최대 15,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MPF 제도는 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을 포함, 18~65세의 60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 퇴직연금제도라는 점에서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ORSO와 차이가 있다. 다만 ORSO 등 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MPF의 가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ORSO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해야 사업주의 부담금 부분에 대한 100%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단기근속 근로자보다는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반면 MPF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100%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ORSO는 DC형과 DB형 중 선택이 가능한 반면

홍콩의 연금제도

3층	개인연금	자발적 개인저축 및 보험	
2층	기업연금	ORSO (임의기업연금제도)	MPF (강제기업연금제도)
1층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 부재	공공부조 CSSA SSAS

MPF는 DC형만이 존재한다. 넷째, ORSO는 근무연수에 따라 근로자는 월 소득의 0~5%, 사용자는 5~15%를 적립하는 반면 MPF는 최소 적립액이 월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즉 월 소득 7,100달러 이하의 경우 사용자 5%, 근로자 0%, 월 소득 7,100~25,000달러의 경우 사용자 5%, 근로자 5%, 월 소득 25,0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자 1,250달러, 근로자 1,250달러의 최소 적립액이 적용된다. 다만 2013년 7월 법규 개정으로 최대 월 소득 25,000달러가 30,000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세제혜택 가능금액도 연간 최대 15,00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6월부터 적용된다.

MPF 제도 도입 이후 급성장한 홍콩 퇴직연금시장은 위험자산 위주로 운용

2000년 MPF 도입 이전 홍콩 근로자 중 1/3 정도만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강제가입 정책에 따라 MPF 도입 이후 이 비중은 2013년 9월말 기준 85%까지 증가하였다. 이 중 MPF가 72%로 대부분을 나타냈으며, ORSO를 포함한 기타 기업연금제도가 13%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중 11%는 연령 등으로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홍콩 퇴직연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MPF는 주로 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되는 MPF 및 채권형 펀드 등의 비중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의 주식투자 비중은 각각 73%, 98% 수준이며, MPF Conservative 펀드는 예금 86%, 채권 14%, 원금보장펀드는 현금 및 예금 20%, 채권 70%, 주식 10% 등으로 운영된다.

홍콩 사적연금시장의 성장 요인은 퇴직연금 제도 가입의 강제화와 투자자 교육

홍콩 사적연금시장은 2000년 강제가입제도인 MPF 도입 이후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강제화한 것이 주된 성장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추가 불입 없는 단순한 연금 가입의 강제화만으로는 사적연금시장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 홍콩에서도 MPF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 혼란기를 겪었다.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들은 익숙치 않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감독기관 및 기업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배포, 운용보고서 공시 개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ORSO와 MPF 제도 비교

구분	ORSO	MPF
가입의 강제성 여부	자발성	강제성
가입 대상	- 근무기간 3년 이상 근로자	- 18~65세 근로자 - 65세 이하 자영업자
최소 적립액	- 근무연수에 따라 근로자는 월 소득의 0~5%, 사용자는 5~15% 적립	- 월 소득 HK\$7,100 이하 : 사용자 5%, 근로자 0% - 월 소득 HK\$7,100~HK\$25,000 : 사용자 5%, 근로자 5% - 월 소득 HK\$25,000 이상 : 사용자 HK\$1,250, 근로자 HK\$1,250
제도 유형	DC형, DB형	DC형
세제 혜택	연간 최대 HK\$15,000	연간 최대 HK\$15,000
수급권	10년 이상 근무 시 100% 수급권 보장	수급권 제한 없음

노력을 기울였고, 금융회사들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세미나, 인터넷을 통한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 교육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홍콩의 MPF 제도는 도입 이후 몇 번에 걸친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중추적 연금제도로써 정착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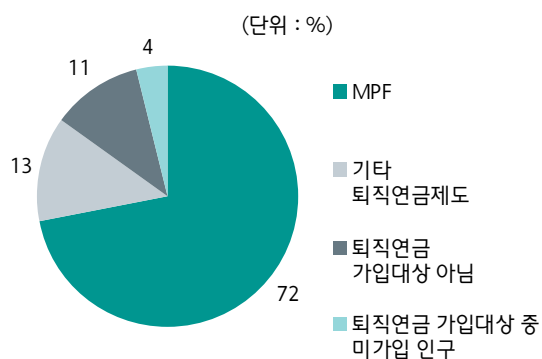
IT버블 붕괴 등에 따른 홍콩 증시 급락으로 MPF 적립금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MPF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하락장에서의 펀드 매입단가 인하로 이후 상승장에서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MPF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국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개인 및 금융회사의 노력 필요

국내에도 급속한 고령화 진행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점차 노후생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 사적연금시장의 발달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적연금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개인, 금융회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 및 유지율 확대를 위한 퇴

종업원 퇴직연금 가입 비중(2013년 9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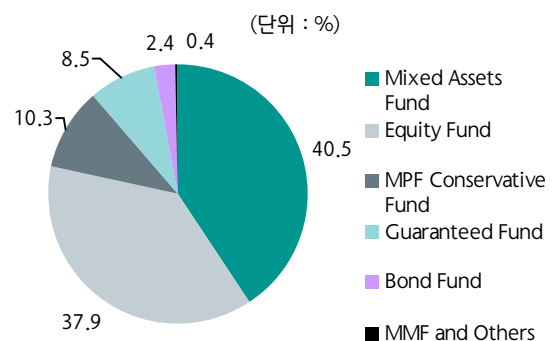
| 자료 : MPFA

직연금의 적립 의무화 또는 연금 수급 강제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자발적 연금상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MPF처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4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투자성격이 강한 DC형의 경우 위험자산이 총투자자의 40%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중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홍콩과 달리 한국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3년 말 기준 DC형 중 원리금보장형이 78.2%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효율적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는 투자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장기투자형 자산배분의 중요성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보다는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입장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본인의 노후 관리를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을 통한 저축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연금 상품의 중도 해지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MPF 운용자산 비중(2013년 말)



| 자료 : MPFA

선박회사 재직 J씨, 실물자산 조정을 통한 금융자산 확대 운용 필요

선박회사에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J씨(46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200만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J씨가 14년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매월 약 28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9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령한 퇴직금을 60세부터 85세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월 14만원으로 환산된다. 이때 할인율은 60~65세를 4%로 설정하고 매 5년 0.5%씩 차감하여 80~85세에 2%가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개인연금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퇴직 후 매월 23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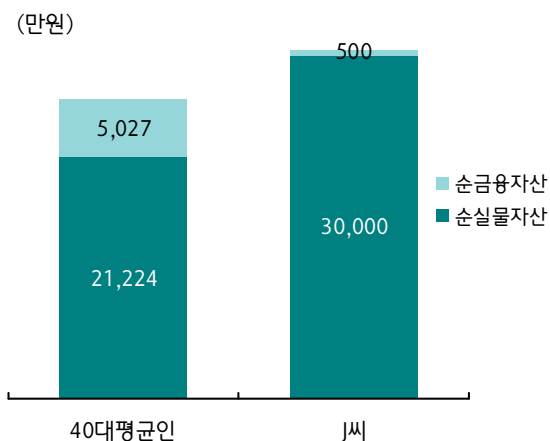
한편 J씨는 현재 3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순실물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실물자산이 40대 평균인 대비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조정 후 실물자산은 주택연

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물자산의 조정을 40대 평균으로 하고 60세에 종신 정액형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현재 기준 1억원 당 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J씨는 조정된 순실물자산을 통해 매월 4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금환산, 주택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103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약 3억 781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 500만원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8,776만원을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6.58%의 수익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익추구형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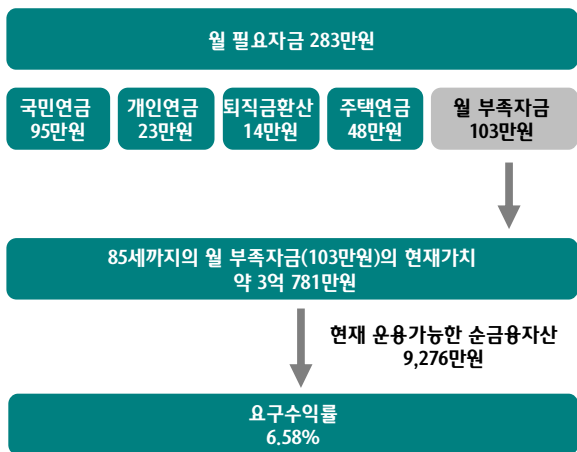
J씨는 40대 평균에 비해 순실물자산은 많으나, 순금융자산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 순금융자산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다소 공격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대 평균인과 J씨의 재무상태 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J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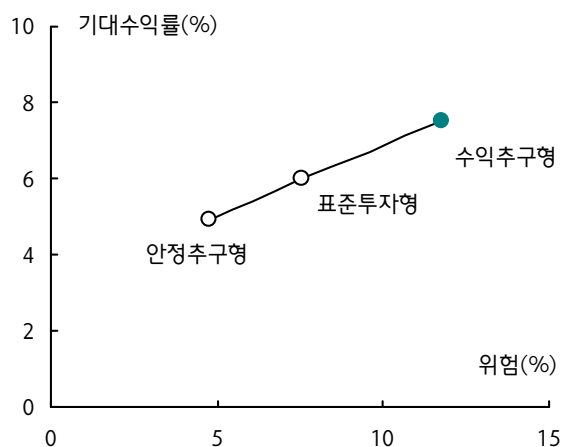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수익추구형 전략이 유효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추구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된다. J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6.58%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J씨는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5월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25.0%, 해외주식 40%(선진국 27.5%, 이머징 12.5%), 국내채권 5.0%, 해외채권 7.5%, 대안형자산 19.5%, 현금성자산 3.0%로 설정하였다.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수익추구형은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며, 채권, 대안형자산, 현금성자산 등 안전자산의 비중은 다소 낮게 가져간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이야기

수익추구형 전략은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국내의 경우 글로벌 증시의 우려 완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수급 개선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KOSPI 2,000pt 수준에서 펀드 환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식의 경우 선진국은 경기회복의 신뢰가 형성되며 상승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머징 시장도 경기회복 및 기업이익 증가 기대가 살아나고 있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채권의 경우 금리가 박스권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자 수익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의 경우 하이일드 채권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중위험형 및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자산 및 현금성자산 비중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10.0	12.0	25.0
선진국주식	—	10.5(-2.0)	27.5(-5.0)
이머징주식	—	5.0(+2.0)	12.5(+5.0)
국내채권	22.5	12.5	5.0
해외채권	5.0	10.0	7.5
대안형	35.0	35.0	19.5
현금성	27.5	15.0	3.0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이야기

투자상품은 주식형 상품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5월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이머징 시장의 경제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 비중을 축소하고 이머징 시장 비중을 확대한다.

포트폴리오의 25.0%를 투자하는 국내주식은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원칙을 중시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A, 유명 투자자문사들의 자문 내용을 랩 자산 운용에 활용하는 하나자문형랩(Sytle I-M:장기성장), 단기 증시 흐름보다 기업의 장기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신영마라톤(주식)A 등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7.5%를 투자하는 선진국 주식은 미국에 상장된 대형 우량주와 ETF에 투자하는 하나 선진글로벌 Leasers & ETF 랩,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는 선진국 소비 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하이생활속의 선진대표기업(주식)A에 투자한다. 12.5%를 투자하는 이머징 주식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본토 기업 중 중국의 대표 우량기업에 장기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중국

1등주 랩/신탁,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베트남 및 아세안에 투자하는 삼성아세안2(주식)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2.5%를 투자하는 채권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 금리 및 크레딧 국면에 따라 고수익이 기대되는 다양한 채권 및 미국 시니어론 등에 분산 투자하는 하나UBS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9.5%를 투자하는 대안형 자산은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룡숫전략을 펼치는 하나UBS글로벌룡숫자(주식혼합)A, 기초자산 3년 만기 스텝다운 월지급식 상품인 85-스텝다운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종 MMF(S-26호) C에 3.0%를 투자한다. 한편 J씨는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성장형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에셋플러스	7.0%
			하나자문형랩(Style I-M: 장기성장)	대신	8.0%
		가치(배당형)	신영마라톤(주식) A	신영	10.0%
	해외주식	선진국	하나 선진글로벌 Leaders & ETF 랩	하나대투	12.5%
			하이생활속의 선진대표기업(주식)	하이	15.0%
		이머징	중국1등주 랩/신탁	하나대투	7.5%
			삼성아세안2(주식) A	삼성	5.0%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5.0%
		해외	하나UBS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 A	하나UBS	7.5%
	대안형	중위험형	하나UBS글로벌룡숫자(주식혼합) A	하나UBS	9.5%
		구조화	85-스텝다운 ELS	하나대투	10.0%
	현금성	-	하나UBS 신종 MMF(S-26호) C	하나UBS	3.0%
합계					100.0%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에 월 10만원 납입 중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수익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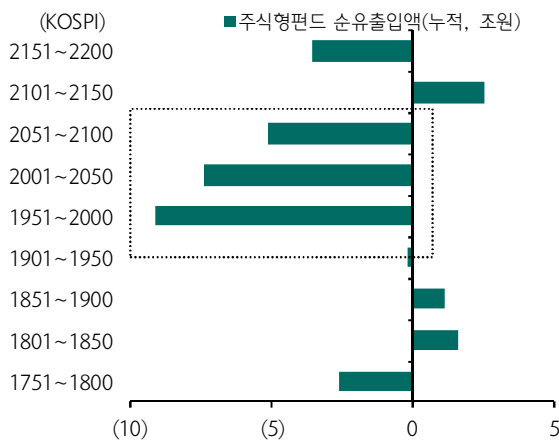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5월 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 개선 등으로 상승 흐름 기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선진국 중심의 경기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대비 가격 매력에 부각되며 3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매물이 출회되며 월 중반 이후 선진국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다. 국내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을 기반으로 상승했다.

5월 국내 주식시장은 벨류에이션 메리트, 외국인 수급 개선, 어닝 서프라이즈 등을 바탕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KOSPI 2,000pt 상회 시 펀드 환매 물량이 많아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물소화과정이 마무리된 이후 재차 상승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분기 실적발표 마무리 이후 2분기 실적 추정치 개선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SPI지수대별 주식형 펀드 순유출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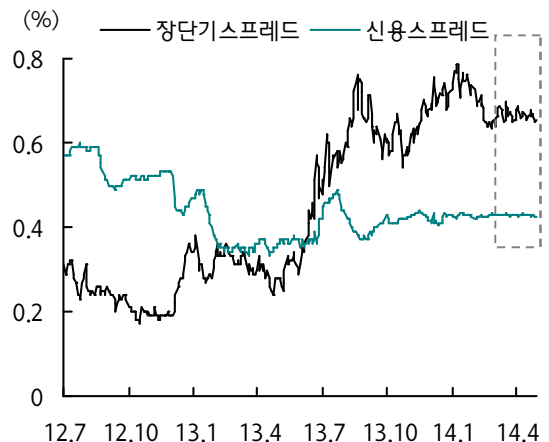
자료 : 하나대투증권

금리는 박스권 흐름 지속 전망

신임 한은 총재의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 금통위 전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도 있었으나, 신임 한은 총재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감소한 모습이다. 다만 아직까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금리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박스권 지속 전망에 따른 변동성 축소로 매매 차익보다는 이자 수익 확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하락했던 미 금리가 사태가 다소 진정되며 하단폭은 제한되고 있다. 올 초 폭설 이후 좋지 않았던 경제 지표들도 향후 개선될 전망이다. 아직 물가가 낮아 금리 상승도 더딘 편이다. 신흥국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던 국가는 가격 메리트 등이 부각되며 반락하였으며, 먼저 반락한 국가는 기술적 반등 추세를 보였다.

크레딧 스프레드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년-국고채 3년
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AA 3년 - 국고채 3년
자료 : 민평 3사,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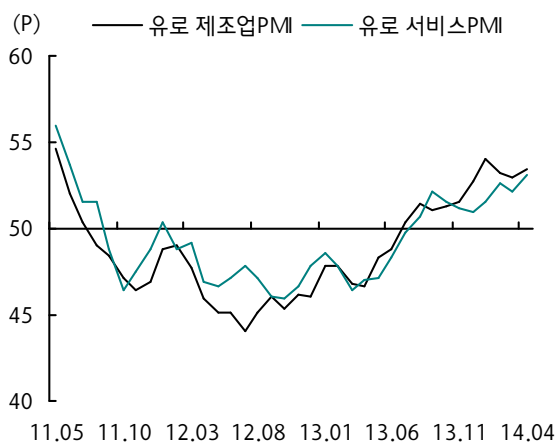
미국은 지난 한파 이후 생산 재개와 소비경기 개선이 나타나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구매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여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역내 소비심리 개선을 바탕으로 제조업 경기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자본시장 복귀 등 남유럽 위기가 일단락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총선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될 소지도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소비심리지수가 2008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지표상으로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물가 부담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기존 양적 완화 스탠스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엔저 속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국은 과잉투자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부분 개선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와 서비스 부문에 특화된 정책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시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2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이어졌고, 승용차 판매량도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7%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부담이다. 브라질은 최근 해알화 환율이 강세로 전환하였으나, 원자재 시장의 불안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리츠시장은 금리민감도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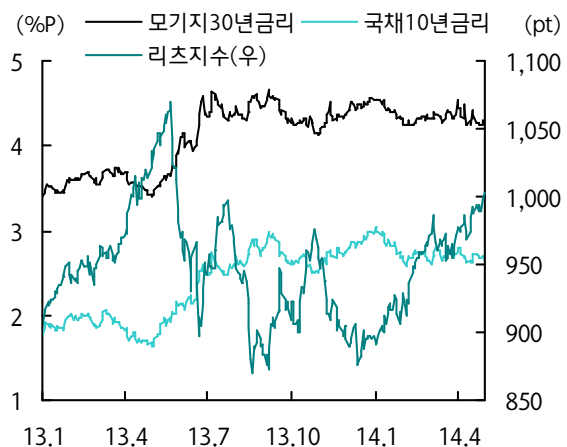
리츠 가격은 나스닥과 동반하락하기도 했으나 연초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배당매력 등은 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금리민감도가 낮은 섹터의 상대성과 우위가 예상된다. 다만, 주가 반락 시 동반 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증시 흐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금리 및 리츠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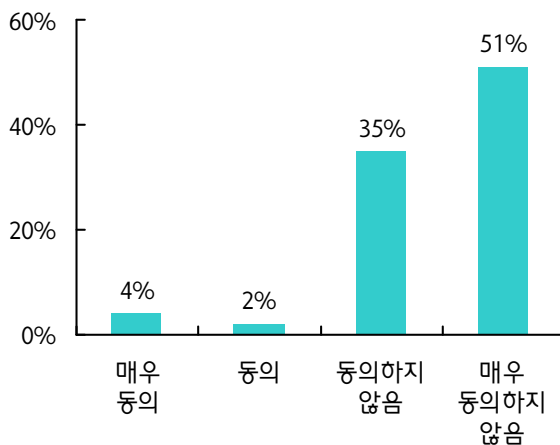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재인식과 변화 진행”

“글로벌 기업들은 DB형의 관리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으로 인하여 DB형 연금을 전환하거나 줄이려고 노력”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퇴직연금관련 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10년간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여왔다. 그렇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시장은 어려워지고 있고, 규제는 보다 강화되고, 노후 의료비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부채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PWC는 이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과 생각하고 있는 실행계획에 대하여 114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퇴직연금 제도로써 DB 제도의 선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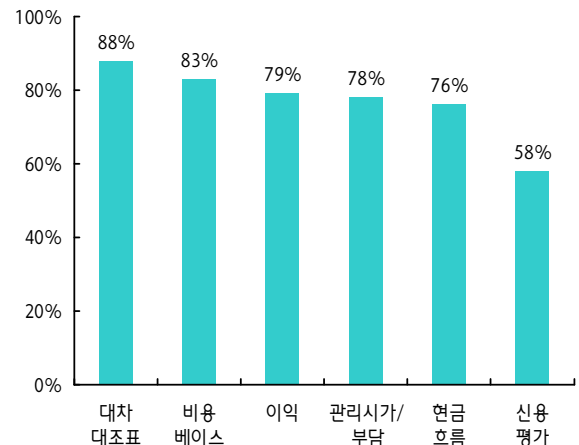


| 주 : 조사 응답자 기준
자료 : PWC

설문조사 결과 우선 DB형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로써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퇴직연금 제도로써 DB형 제도를 선호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조사대상의 6%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86%는 DB형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로써 선호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대신 퇴직연금 제도로써 DC형을 90%가 선호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DB형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83%가 신규채용직원에게 DB형을 제공하지 않고, 56%는 DB형에 가입한 기존직원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기존 DB형의 이행 의무를 매우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88%는 대차대조표 상의 DB부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고, 비용베이스에 대한 우려는 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현금흐름 및 신용평가관련 위험으로 각각 76%, 58%가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은 향후 대차대조표상의 DB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45%는 외부 보험사에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39%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장수위험을 적극적으로 헤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B형 퇴직연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위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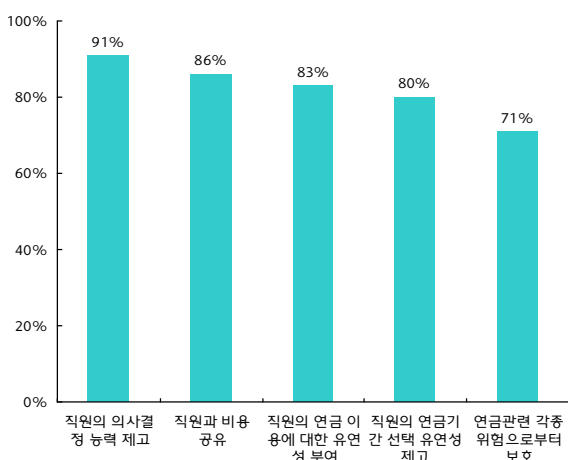


| 주 : 조사 응답자 기준
자료 : PWC

세 번째로는 기업들은 여전히 직원들의 퇴직연금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90%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달리 직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직원들이 퇴직연금 관련 의사결정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91%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6%는 퇴직연금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 조사대상자들은 향후 퇴직연금과 관련해 직원에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0년 후에는 직원들의 연금이용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자의 51%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61%는 직원들이 보상중 상당 부분을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업이 연금관련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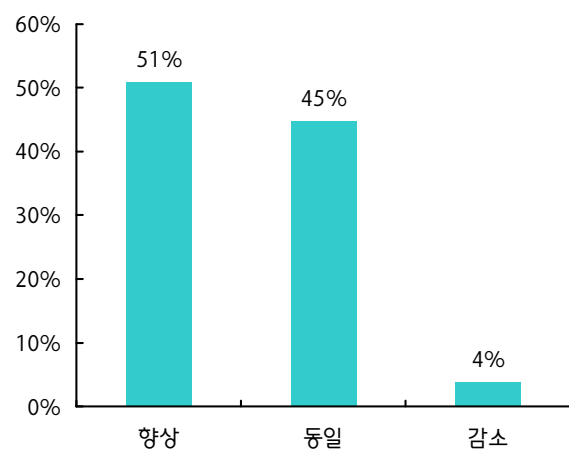
주 : 조사 응답자 기준
자료 : PWC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으로 연금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행을 위해서는 본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다양한 도전 과제 하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DB 부채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사대상 기업들의 73%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 지역의 연금제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44%는 내부에 다국적 차원에서 연금관련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장수 위험, 인플레이션 등 시장조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강화 등으로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내기업의 경우 적립금 기준 72%가 DB형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해외기업들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적절한 전략의 수립을 통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Global Retirement Benefits in a Post-Defined Benefits World," PWC, 2014. 2)

10년 후 연금이용에 대한 유연성 방향



주 : 조사 응답자 기준
자료 : PWC

“

국민연금, 2013년 기금운용 보고서 발표

”

“수익률 제고와 위험의 분산 등을 위하여
해외투자, 대체투자, 위탁운용, 사회책임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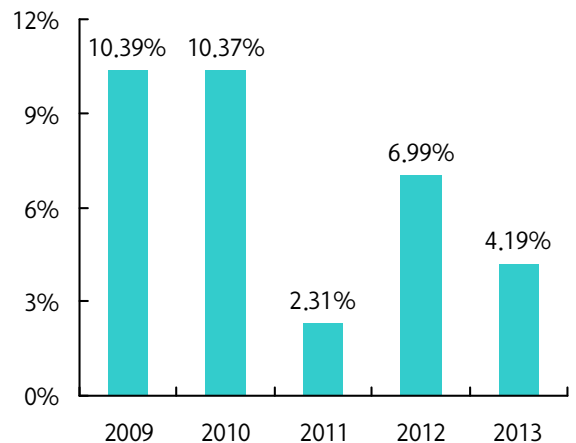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최근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88년 5,300억원 규모로 시작된 국민연금 기금은 2010년 300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2013년 말에는 426.9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장기재정추계결과 2043년까지 적립기금이 계속 증가하여 2,561조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성과는 2013년에 4.19%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6.99%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국내주식, 국내외 채권의 성과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주식과 채권이 각각 전년동기 10.42%, 5.93%에서 각각 2.94%, 2.14%로 수익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해외채권도 2013년 0.3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9.06%대비 크게 낮아졌다. 반면 해외주식과 대체투자는 전년동기 각각 9.16%, 4.92%의 수익률에서에서 2013년에는 각각 21.27%, 6.42%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운용을 위한 배분은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채권이 전년대비 4%p 비중 감소를 보였지만 55.8%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국내주식은 19.7%로 83.9조원의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해외증권은 14.7%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대체투자는 9.4%의 투자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해외투자가 전년동기 12.6%에서 2013년에 14.7%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금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분산을 위하여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3년에는 전년동기대비 1%p 증가한 9.4%를 보였다. 이 또한 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는 위탁운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9.4%이던 것이 2012년에는 30.9%로 높아졌고, 2013년에는 33.8%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 제고와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용유형의 다양화로 기금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가져오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책임 투자를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펀드는 2012년 5.2조원에서 2013년 6.3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금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장기적인 수익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고서", 국민연금, 2014.4)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률 추이



| 자료 : 국민연금

“DC형 가입자의 실적배당상품 성향 분석”

“분석결과 남성, 임금수준이 높을 수록, 업
종별로는 공기업, 외자계 및 금융업에서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선호”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그 동안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의 보수적 운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4일 한국연금
학회에서는 "퇴직연금 DC 실적배당 가입자 성향 분석
및 시사점¹⁾"이라는 주제가 발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실적배당형 상품 판매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자의 성향을 분석 제시하
였다.

퇴직연금 DC 실적배당형 가입자의 성향분석을 생명보
험권 1개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DC형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별특성 측면에서는 남성(21.8%)이 여성(15.0%)보다
실적배당형 선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25%의 선택비중을 보이며
역 U자형의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임금총액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실적배당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회사 특성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실
적배당형을 선호하였고, 노조가 있는 회사(38.3%)가
없는 경우(18.1%)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업종별로는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퇴직
연금관련 교육이 활발한 금융업(55.6%), 외자계
(55.3%), 공기업(61.2%) 등이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1) 박준범 외 1인, "퇴직연금 DC 실적배당형 가입자 성향 분석
및 시사점," 20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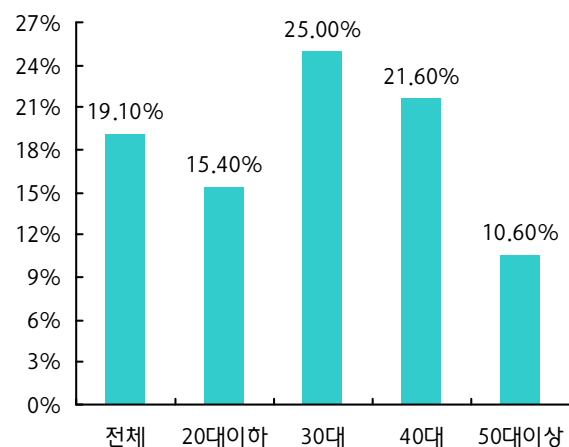
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차산업, 건설
등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편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에서는 성별, 업
종 등 범주형 변수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
금총액 등 연속형 변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 상품
선택그룹과 저수익 상품 선택그룹간의 분석의 경우 성
별로는 남성이, 업종별로는 외자계 등이 고수익상품을
보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선택은 근로자 개인의 입
장에서는 금융지식, 가입자 교육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고수익 상품 Line-up 제시 능력, 가입자는 이들 상품
을 활용한 적절한 자산배분이 수익률제고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
기관들은 개별회사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익률
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 Line-up의 구성에 많은 노력
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 DC 실적배당형 가입자 성향 분석 및 시사
점”,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4)

가입자수 기준 실적배당형 선택 비중



| 주 : 실적배당형은 실적배당과 원리금보장 모두 선택자도 포함 |
자료 : 전계서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후 10년간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 제공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은 가입 시점에서 직전 과세연도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금융소득합계액 2,000만원 초과)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 급여액의 범위는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 근로수당 등과 같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된다.

납입 최고 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 이체하는 정액 적립식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

입 후 가장 10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5년 내 해지할 경우에는 총 납입액의 6% 수준(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한다.

한편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소장펀드에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로운 개인연금펀드 등과는 달리 가입 이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유사한 상품으로는 2013년 도입된 재형저축이 있다. 재형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세제혜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가입 이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품으로 판단된다. 가입 기한이 2015년 말로 한시적인 만큼 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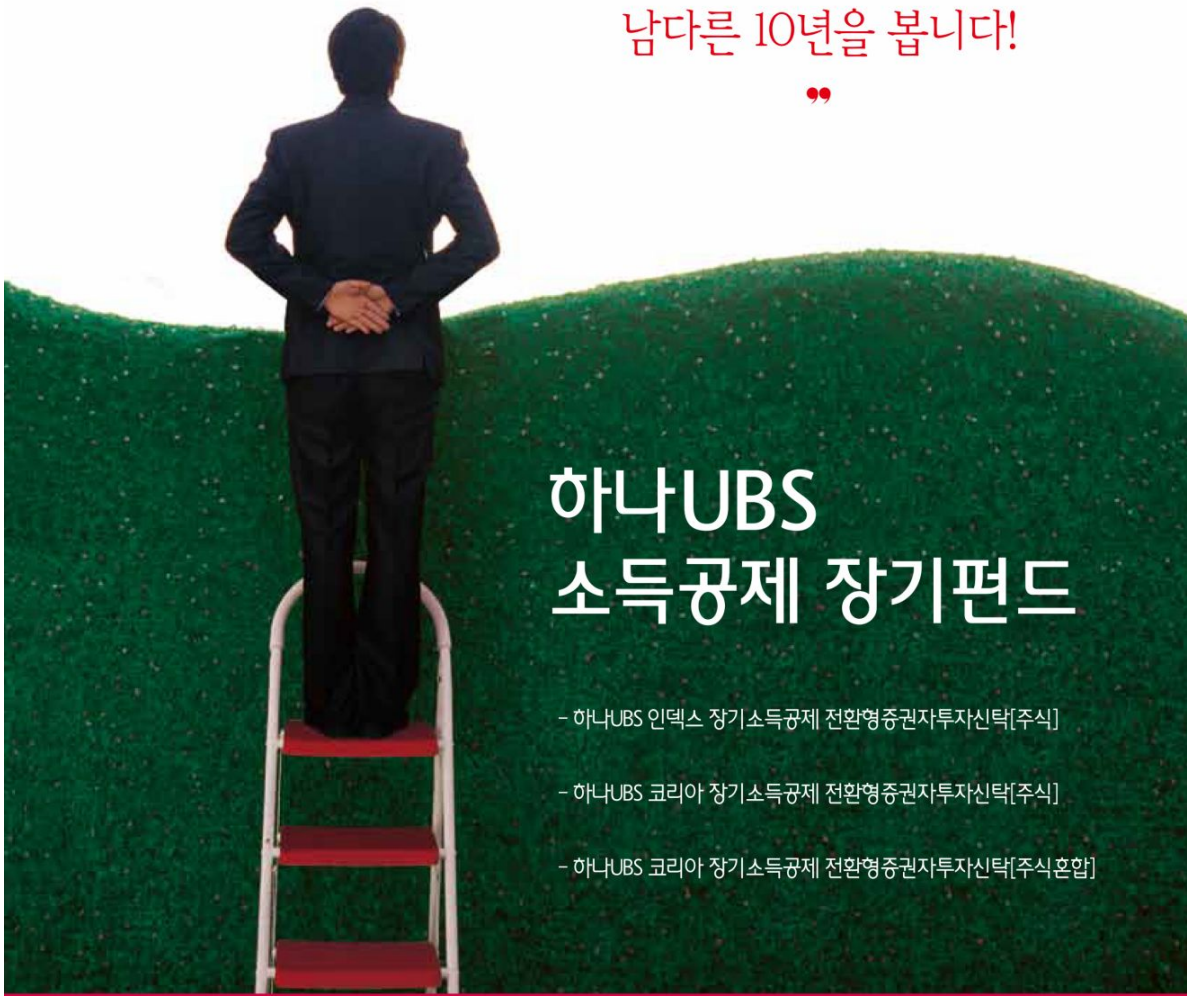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펀드 비교

구분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가입자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가입기간	최소 5년~최장 10년	최소 7년~최장 10년
세제혜택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농특세 부과)
원금보장 여부	비보장(실적배당형 상품)	보장 또는 비보장(펀드상품)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1545호 (2014.3.17 ~ 2015.3.16)

“
남다른 10년을 봅니다!
”



하나UBS 소득공제 장기펀드

-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판매회사  **하나대투증권**

운용회사  **하나 UBS** 자산
운용

10년 후를 내다보는 현명한 재테크와 세테크!

하나UBS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구성된 3개 펀드에 대해
전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전환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후를 위한 투자의 첫걸음 - 하나UBS 자산운용과 함께 하십시오!

Global Solutions within Your Reach

고객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개개인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여러분들의 니즈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UBS자산운용의 약속입니다.

고령화 시대, 은퇴자를 위한 주거시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은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퇴후 주거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겨나고 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은퇴 후 주거지를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거주지 선정 4요소

은퇴 후 주거지를 선정하는 데 고려될 사항으로는 Location, Lifestyle, Financial, Medical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Location(위치)-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입지유형에 따라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단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Lifestyle(생활방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활방식에 따라 주거지선택이 크게 바뀔 수 있다. 편리함과 예술, 공연 등의 문화시설을 향유하길 원한다면 도심에서의 생활을 원할 것이고, 귀농귀촌을 통한 전원생활을 꿈꾼다면 근교나 지방농촌마을을 택할 것이다. 인생2모작,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면, 새로운 직장 근처의 주거지를 구할 수도 있다.

거주지의 입지유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도시형	- 종래생활권 연장 - 가족간 교류 가능 - 생활편의기능 활용 - 운영유리, 선호도 높음	- 높은지가 - 고층화(사업비 증가) - 상대적 자연조건 低
도시 근교형	- 지역주민과의 교류 - 안정된 가격 - 양호한 주거환경	- 도시편의시설 활용도 떨어짐(접근성 低) - 건축제한지역 많음
전원형	- 관광적 요소 활용 - 자연환경 양호 - 커뮤니티형성 양호	- 도시적 기능 미비 - 생활필수단지 설치(개발, 운영비용부담)

| 자료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셋째, Financial(금융)-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도 은퇴 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주거비용 때문에 거처를 옮기거나, 평형을 줄여 이사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은퇴 후에는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연금, 사업, 임대료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생활비의 일정규모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에 대해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실버타운 입주 경우 분양가격 및 월 생활비(시설운영선납금, 관리비, 식비)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넷째, Medical(의료)- 의료시설이용에 용이한가?

은퇴 후 건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그래서 주거지를 고를 때 빠질 수 없는 사항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다. 최근 생겨나고 있는 실버타운 내에는 병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지 내 병원/의료시설 및 건강관리, 체력단련시설(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Nursing Home(목욕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요양보호사 상주) 등이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며, 첫번째, 생활시설은 주거시설, 의료시설로 다시 분류된다. 주거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의료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두번째, 이용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가 있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 32조)

구분	내용	이용대상	사업주체
양로시설	• 일상편의제공 (급식 등)	• 기초수급권자 65세 이상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지자체
노인공동 생활가정	• 5~9인 이하 노인그룹홈	• 기초수급권자 65세 이상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지자체
노인복지 주택	• 분양 및 임대 • 일상생활, 주 거편의 제공	• 60세 이상 (배우자 60세 미만도 가능)	• 개인, 기업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국가/지자체

자료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노인의료시설(노인복지법 제 34조)

구분	내용	이용대상	사업주체
노인요양 시설	• 10인 이상 • 일상생활편의 제공(급식 등)	• 장기요양등급 1~2급 • 65세 이상 • 3등급시설급 여 명기자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국가/지자체
요양병원 (의료법)	• 노인대상 의 료서비스 제공	• 노인성질환으 로 치료, 요양 필요자 • 임종 앞둔 환 자 (호스피스완화)	• 개인, 기업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국가/지자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5~9인 이하 • 주거, 급식, 요양 서비스 제 공	• 장기요양등급 1~2급 • 65세이상 • 3등급시설급 여 명기자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국가/지자체

자료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향거장수(鄉居長壽)

'향거장수'란 고향에 기거하며 오래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서울대 박상철 교수는 미래사회의 고령화 대책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늙어갈 수 있는 '향거장수(Aging in Place)'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전미 은퇴자협회(AARP)가 2000년도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50세 이상 인구의 84%가 오랫동안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 머물고 싶다고 응답했다. 예전에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직업, 학업, 금전적 이유로 한 곳에서 머무르기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익숙한 곳을 선호하게 되고, 1인가족이 대세인 현실에서 가족단위보다는 공동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향거장수를 잘 유지하려면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편리한 교통체계, 안전한 주변환경, 나이에 맞춘 집의 변형, 건강한 신체 수준(돌봄서비스가 필요 없는 정도), 관련 지원서비스 구비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향거장수 시스템으로는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가 있는데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니어커뮤니티로, 거주지 내 지역서비스, 자원봉사프로그램, 사회활동 등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국내의 대표적인 실버타운

시니어스 타워
서울 중구 다산로 72(19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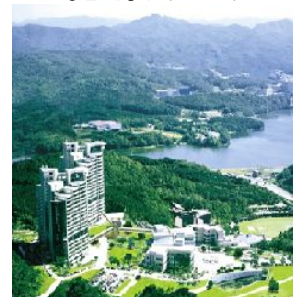
THE CLASSIC 500
서울 광진구 자양동(2009.6)



노블레스 타워
서울 성북구 종암동(2006.5)



노블카운티
용인 기흥구 (2001.5)



자료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하나 행복디자인, '2014 고객감동브랜드지수' 은퇴자산관리 부문 1위

하나은행 은퇴브랜드 '하나 행복디자인'이 4월 25일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는 '2014 고객감동브랜드지수' 은퇴자산관리 부문 1위로 선정되었다. 당행은 은행권 최초로 은퇴설계시스템 도입, 전문인력 양성, 은퇴전용상품 등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와 건강 등 다양한 비재무 정보 제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대투증권, 노무라자산운용과 MOU 체결

하나대투증권은 4월 21일 글로벌 투자 노하우를 보유한 노무라자산운용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무라자산운용의 글로벌 금융상품을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는 한편, 마케팅 및 판매 지원, 양국간 리서치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외환은행, 스마트폰 뱅킹 전면 개편 시행

외환은행은 4월 29일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인 '외환 스마트뱅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는 그동안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이용 가능했던 각종 금융거래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금융상품몰, 알림 서비스,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생명, 빈곤국 아동 돕기 양말인형 만들기 캠페인 진행

하나생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빈곤국 아동을 돕는 옥수수양말인형 코니돌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내 봉사동호회 '더하기하나'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10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며, 완성된 인형으로 빈곤국 아동 정서 성장을 돕고 수익금으로 식량, 교육, 의료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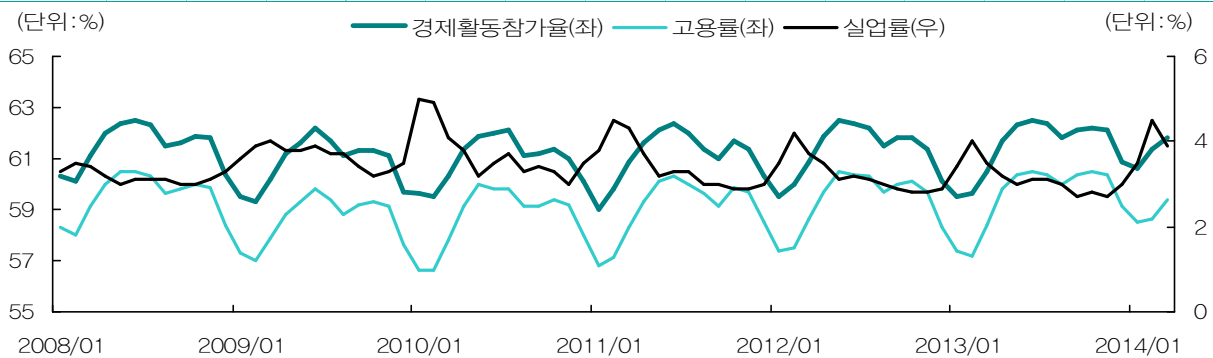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4.1~3	61.3	9.3	62.8	75.4	80.5	74.6	36.5	58.8	8.1	56.7	73.0	78.6	72.9	34.9
2014.2	61.4	9.8	63.8	75.6	80.4	74.5	36.1	58.6	8.7	56.9	72.9	78.4	72.8	33.9
2014.3	61.8	7.6	62.3	75.6	80.9	75.5	38.7	59.4	7.0	56.0	73.0	78.9	73.6	37.5

(단위: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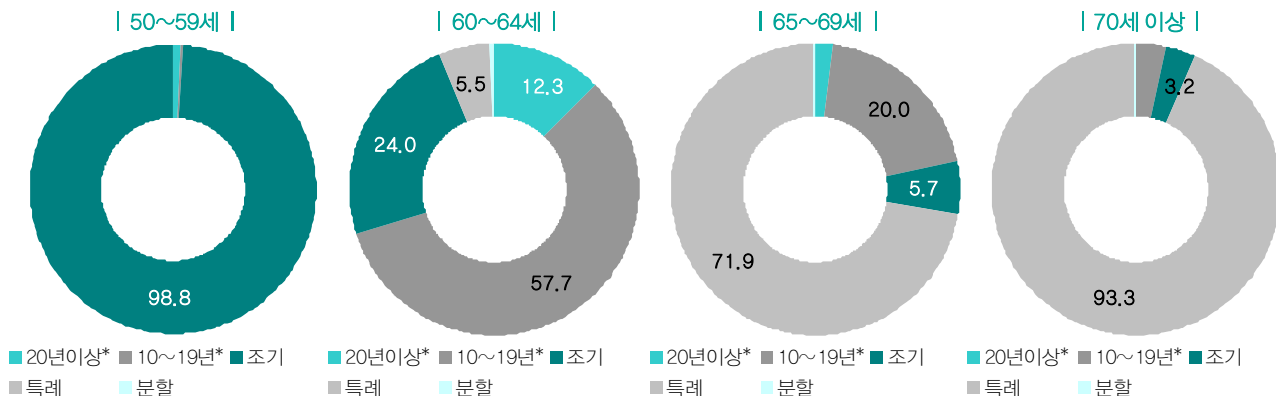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2	20,809,917	1,301,434	11,937,062	8,566,294	1,974,646	6,591,648	181,020	125,541

2. 2014년 2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2	327	3,506
2014.3	458	4,615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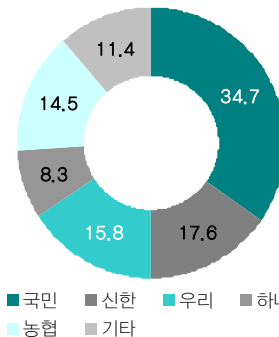


2. 2014년 3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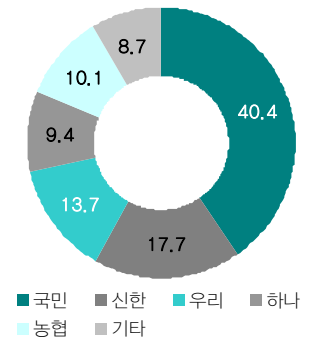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601	92,837
신한은행	708	40,692
우리은행	729	31,515
하나은행	381	21,530
농협	671	23,292
기타	525	20,008
합계	4,615	229,874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12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870,041	5,304,698	1,422,319	84,750	1,323,926	88,860	103,248	33,838
생명보험	3,156,559	2,851,543	192,357	3,545	237,271	8,337	13,008	1,665
손해보험	1,096,299	999,822	60,312	267	57,778	1,849	1,969	83
증권	2,680,383	2,434,280	136,054	363	119,433	3,298	6,916	112
근로공단	102,461	-	100,169	427	26,427	-	26,213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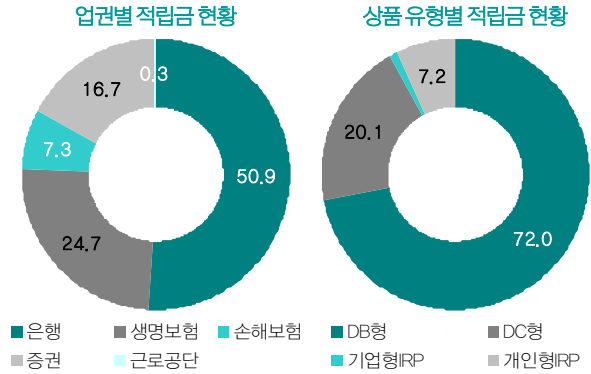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7,286	82,355	32.0	6,724	2.6	132,720	51.6	35,505	13.8

3. 2013년 12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42,996	606,573	169,114	6,940	60,368
은행	429,294	268,266	112,454	6,693	41,880
생명보험	207,995	176,772	22,730	196	8,298
손해보험	61,662	54,493	5,141	12	2,017
증권	141,138	107,043	25,916	23	8,157
근로공단	2,906	-	2,873	16	16



4. 2013년 12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295,285	48.6	104,352	61.7	6,054	87.2	37,463	62.0	443,154	52.6
	금리확정형보험	219,325	36.2	17,216	10.2	132	1.9	7,477	12.4	244,150	29
	금리연동형보험	20,972	3.5	5,429	3.2	61	0.9	1,683	2.8	28,144	3.3
	국채	501	0.1	1,065	0.6	0	0.0	1,417	2.3	2,983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보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46,061	7.6	2,020	1.2	0	0.0	1,848	3.1	49,930	5.9
	RP	9,439	1.6	2,036	1.2	1	0.0	850	1.4	12,32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7	0.1	0	0.0	39	0.1	177	0.0
	기타	0	0.0	1	0.0	0	0.0	5	0.0	7	0.0
원리금보장형 소계		591,582	97.5	132,258	78.2	6,247	90.0	50,783	84.1	780,871	92.6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 보험	161	0.0	1,542	0.9	10	0.1	353	0.6	2,065	0.2
	주식형	904	0.1	66	0.0	0	0.0	40	0.1	1,011	0.1
	혼합형	735	0.1	8,418	5	15	0.2	1,219	2	10,388	1.2
	채권형	3,937	0.6	22,599	13.4	604	8.7	3,274	5.4	30,414	3.6
	재간접	106	0.0	215	0.1	0	0.0	25	0.0	347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392	0.2	0	0.0	0	0.0	0	0.0	1,392	0.2
	집합투자증권 소계	7,236	1.2	32,841	19.4	630	9.1	4,911	8.1	45,617	5.4
	직접투자	435	0.1	64	0.0	0	0.0	308	0.5	807	0.1
	실적배당 소계	7,670	1.3	32,905	19.5	630	9.1	5,219	8.6	46,424	5.5
대기성 자금		7,321	1.2	3,951	2.3	63	0.9	4,366	7.2	15,701	1.9
총계		606,573	100.0	169,114	100.0	6,940	100.0	60,368	100.0	842,996	100.0

5. 2013년 12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401,816	93.6	198,008	95.2	60,156	97.6	118,084	83.7	2,808	96.6
실적배당형	18,500	4.3	8,433	4.1	1,492	2.4	17,980	12.7	20	0.7
기타	8,978	2.1	1,555	0.7	15	0.0	5,075	3.6	78	2.7
합계	429,294	100.0	207,996	100.0	61,663	100.0	141,139	100.0	2,906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www.hanaif.re.kr

